



# 안경 이야기

연재 1 회

李 相 旭

## 안경의 역사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안경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다. 처음으로 안경을 발명한 사람은 프로렌스의 “실비노·다르마티”라는 실과 또는 피사의 승려인 “알렉산드로·디·스피나”라는 설이 있어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안경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이탈리아의 베니스이며, 그 시기는 대충 1270년에서 1280년 사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안경은 오로지 노안(老眼)에 대한 돋보기 안경으로 책을 보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것이, 15세기에 이르러서야 대주교 “니콜라우스·폰·쿠사”(1430~1490)가 비로써 근시에 오목렌즈가 좋다는 것을 발표했다.

그후 난시(亂視)에 대한 개념은 1694년 “델·라·히르”에 의해서 알려졌으나 난시교정에 원주(圓柱)렌즈가 사용된 것은 훨씬 후인 1827년 “아아미”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중초점(二重焦點)안경은 1760년경에 런던에 와있던 “벤자민·프랜클린”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야 일반화되었다.

호박(琥珀)이나 운모(雲母)가 아닌 유리로 된 선글래스는 1885년

眼鏡 발명자는 「다르마티」인가 「스피나」인가

에 미국 휘라델피아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안경에 얽힌 일화로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이 의회에서 “여러분! 나에게 안경을 쓰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나는 국무에 어두울 뿐 아니라 눈도 어둡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안경을 쓰는 것에 대한 태도도 동서(東西)에서 달라서 1915년에 “라뭇센”이 쓴 책에 의하면 중국 사람은 뒷사람에 대해서는 안경을 벗어야 하며 재판관의 던전에서 안경을 쓰는것은 더 할나위 없는 무례한 짓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찌 조선 제24대의 현종(憲宗)때 왕 앞에서 안경을 썼던 이조판서가 스스로 죽은 일이 있고, 고종(高宗)28년 (1891년)에 일본의 전권 대사(大石正己)가 안경을 끼고 고종에 알현하였다해서 크게 칼쟁이 난 일이 있다.

그 반면 서양에서는 안경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것

- 연계 「안경 이야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속됩니다.
1. 안경의 역사
  2. 올바른 안경을 쓰자
  3. 안경 피로
  4. 근시
  5. 원시
  6. 난시
  7. 노안
  8. 선그라스
  9. 콘택트렌즈
  10. 안경테 이야기

은 신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라 해서 크게 죄악시한적이 있었다. 따라서 최초의 안경 발명자라고 알려진 “다르마티”의 묘비(墓碑)에는 “안경의 발명자 여기에 잠들도다. 주여, 이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적혀있다.

또한 안경을 쓰는것은 나이가 든 증거이거나 병이 있다고 생각되어 어떻게든 노안경을 안 쓸려는 경향도 있었다. “해밍웨이”자신도 글이 잘 안보이자 어느 부인이 “뚝보기를 쓰셔야겠군요”하고 말하자 소매치기나 방화범이 현장에서 당황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필자=가톨릭의대 안과교수>